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 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포함한 고교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토론회(6/15)에서는 ‘질 높은 고교내신을 위한 평가와 기록 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고교평가 혁신은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가 혁신은 다시 질 개선의 문제와 과도한 변별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고교평가 혁신은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시급한 문제임. 현재의 고교평가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교사가 전달하고 학생은 수용하도록 하는 학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우리는 객관식 정답 찾기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입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국가 표준화시험인 수능도 그러하고, 학교 내신 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혁신 이해정 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관식 정답 찾기 수능과 내신 시험은 획일화된 교육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가능하게 해서 사교육의 기형적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평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여 공교육을 무너뜨렸으며, 학생들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고사시켜서 교실에서 절반 넘게 옆드려 자거나 아니면 안 자고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해도 전혀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낡은 교육입니다. [표 1]은 2017 대입 수능 국어와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졸업고사인 IGCSE의 국어 평가 문항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 수능 국어 문제는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항 25개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항 19개가 전체 45 문항 중 44 문항으로 97.8%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IGCSE의 국어 평가는 단 두 문항이었지만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표 1] 2017 대입 수능 국어 문항과 IGCSE 국어 문항 비교

[2017 대입 수능 국어]	[IGCSE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식 45문항 중 - 다음 중 적절한 것은? 25문항 -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소유 vs 백치 아다다 지문을 읽고, 소유의 부정적인 측면과 무소유의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비교 분석하시오 -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말에 동의하는지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출처 : 이해정 소장 발제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 (2017.06)]

[표 1]에서 두 시험을 준비하는 각각의 학생은 어떤 공부를 할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려면 정답 찾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매력적인 선다형 오답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어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반면 IGCSE를 잘하려면 깊은 사고력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논리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정책위원도 우리나라 수능이나 내신 평가의 유형은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의 정답을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반면, IGCSE나 영국의 A레벨과 같은 시험은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의 수준이나 깊이가 평가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보기가 얼마나 유사해서 정답을 가려내기 어려운지 평가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 시험이 더는 객관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력 중심의 논·서술형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로, 이해정 소장은 **채점의 공정성, 교사집단의 반발, 사교육계의 저항**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채점의 공정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선진국에서 수십 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교차 채점, 재채점 신청, 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관리 등의 방법이 있었고 이는 우리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사가 어떻게 사고력 수업을 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저항 또한 교사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준다면,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앞장서서 이미 200개 고등학교 공교육 안에 IB과정을 도입했으며, 평가의 변화를 통해 교육혁명을 시도하고 있음.

이웃 나라 일본의 교육은 그동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입식 교육,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은 일본과 우리 교육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IB 디플로마(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라는 국제 공통 고교 학위 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당면한 난제들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겠다는 국가 차원의 선택이었습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한계를 느낀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대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수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가 앞장서 IB 커리큘럼을 들여오고 교육과정 및 시험의 전 과정을 모두 일본어로 번역하고, 2018년까지 일본 전역 200여 개 공립학교에 IB를 확산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일본 내 대학들이 IB 결과로 대학시험을 대체하게 했습니다. 지식 암기 위주의 시험에서 논·서술형 주관식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정답 찾기가 아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혜정 소장은 교육의 변화를 위한 일본 문부성의 IB 도입을 이야기하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줍니다. 교육의 변화를 위한 모든 과제를 정부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지만, 급격히 예고된 변화 앞에 국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곧 들이닥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너무 늦지 않게 새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 고교내신 및 수능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나,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 특히 내신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고교서열화의 해소가 선결조건이라는 의견과 더는 절대평가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섬.

고교평가 혁신의 필요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지만, 이를 위한 고교내신 절대평가 시행시기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혜정 소장은 4차 혁명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고 학생 수 급감, 확대된 수시 등 변화의 토대가 마련된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하였고, 김성수 정책위원은 내신의 경우 어떤 평가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현재와 같이 고교와 대학이 과도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장 상대평가 요소를 모두 제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서열화 해소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론자인 이동우 교사도 고교서열화가 먼저 해소되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내신 절대평가를 시행하되 원점수와 표준편차, 평균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과도기적으로 사용하고 서열화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고교내신 절대평가는 수능 절대평가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미루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고교내신 및 수능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과도한 변별’을 요구하는 것임. 과도한 변별을 요구하는 대학의 이기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고교평가의 질과 방법의 혁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가르친 내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소화하고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낯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평가혁신은 어떤 방법의 문제인가가 아니라 어떤 평가를 사용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결과와 수능의 결과를 촘촘하게 모두 줄 세워야 하고, 그런 자료를 대학이 당당히 요구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200개가 되는 4년제 대학의 수천 개의 학과에 학생을 줄 세우는 과도한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학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평가유형이나 방법도 기형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정 소장은 과연 변별해서 우리가 골라내고자 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되물었습니다. 박태환과 김연아를 달리기로 평가해서 석차를 매기고자 하는 시험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야별 변별이 필요한 것인데 전공과 무관하게 하나로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교내신이나 수능을 통해 하는 변별은 대학에서 학문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있지 않고, 오직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 정책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평가의 문제는 변별적 평가관이 발달적 평가관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변별적 평가관은 평가 목적이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한 변별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통해 표준점수, 백분율, 석차등급을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달적 평가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추어 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평가의 목적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서열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 평가에 맞춰져 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합니다.

[그림 1] 변별적 평가관과 발달적 평가관에 따른 선택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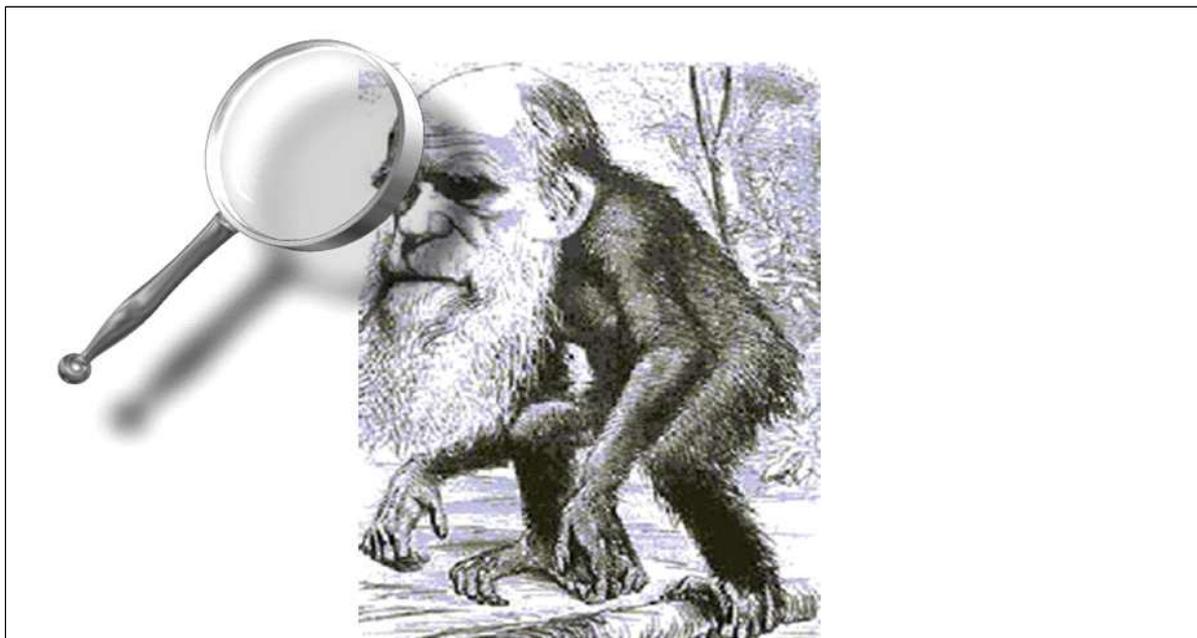
변별 중심 평가관	발달 중심 평가관
경쟁 강화 논리	경쟁 완화 논리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평가의 타당성
대학 자율성	고교 교육정상화

[출처 : 대학입학전형제도 변천과정의 특징이 대학입학시험제도 구안에 주는 시사점(박도순), 김성수 정책위원 발제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2017.06)]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평가관이 교육제도와 정책에 섞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 자유학기제 확대, 교육정책의 미래 지향점은 발달적 평가관인데, 고교평가와 대입에서의 과도한 변별력을 당연한 가치로 여기는 변별적 평가관도 섞여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는 [그림 2]와 같이 머리와 몸의 진화 정도가 다른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변별적 평가관과 발달적 평가관의 혼재



[출처 : 지은림 교수 발제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2017.06.01.)]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평가관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설계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변별력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도 사실 이 문제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면서 변별력도 100%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 4차 마지막 토론회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열림.

지금까지 고교내신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4차 토론회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고교학점제는 앞서 대선공약에서 문제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기도 했고,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고교학점제가 왜곡되지 않고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교내신 절대평가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 4차 토론회는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차 토론회에는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와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공동발제하고, 이기정 미양고 교사,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연구위원장

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고교학점제 도입, 왜 해야 하는가?

■ 일시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 발제 (발표 순서) 및 □ 토론 (가나다순)
1차 05/25(목)	고교내신체제의 변천과정과 해외 사례 검토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2차 06/01(목)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의 전면 도입 가능한가?	■ 지은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김진훈 (송의여고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3차 06/15(목)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이해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이동우 (대구 청구고교 교사)
4차 06/29(목) 오후 2시	고교학점제 도입, 왜 해야 하는가?	■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이기정 (미양고 교사)
		□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연구위원장)

2017. 06.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